

## “한 떼의 적군이 내 성에 들어온들 이 만큼 놀랍겠느냐”: 『바뀌친 신부』에 나타난 여성문제와 정치

김 희 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바뀌친 신부』(*The Changeling*)에 대한 최근 비평은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부도덕한 본성”을 보여준다는 엘리엇(T. S. Eliot)의 설명(163) 이후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도덕적 해석에서 벗어나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다.<sup>1)</sup> 『바뀌친 신부』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정치 및 권력 관계를 탈신비화 한다고 보는 정치적 비평이 그 하나이다(Dollimore 45, 178). 이러한 견해는 특히 스튜어트 왕정과 의회 및 지식인들 사이의 대립이 고조되는 17세기 초반에 작품의 주플롯을 담당한 미들튼(Thomas Middleton)이 청교도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교섭을 하면서 제임스 1세의 정책에 반대한 작가라는 사실에서 뒷

1) 『바뀌친 신부』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비평의 대표적인 예로 돕(Penelope Doob); 달더(Joost Daalder) “Folly and Madness” 참조.

주 제 어: 여성문제, 정치, 순결, 여성의 욕망과 성, 여성성  
the woman question, politics, female chastity, female desire and sexuality, femininity

받침된다(Heinemann 172-80). 또 다른 한 갈래는 이튼(Sara Eaton)이나 리틀(Arthur L. Little)의 경우처럼 『바뀌친 신부』에서 여성의 순결, 여성성 등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당대 여성문제(the woman question)를 읽어내는 비평이다.

그러나 이처럼 『바뀌친 신부』에서 정치와 여성문제를 따로 읽어낼 때 제기되는 문제는 미들튼에게 있어 정치와 여성문제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데 있다. “미들튼에게 정치는 성적이고(sexual), 성은 정치적이다”라는 차크라보티(Swapan Chakravorty)의 지적처럼 미들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 대의가 아니라 정치 및 권력 관계가 근거하고 있는 전반적인 제도와 문화행위이다(14-15). 푸코의 설명대로 권력이 그 메카니즘을 숨기고 다른 유형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62), 미들튼이야말로 정치와 성(性), 왕국과 가정의 연결 구조를 인식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칩사이드의 순결한 처녀』(*A Chaste Maid in Cheapside* 1613)에서 당대 번성하던 런던의 상업 지구를 배경으로 시장 경제와 성 담론의 상호 작용을 탐색한 미들튼이 『바뀌친 신부』에서는 정치와 성의 교묘한 연결 관계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프란시스 하워드(Frances Howard) 스캔들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코비안 시대의 최대 스캔들”이었다고 일컬어지는(Lindley 1) 이 사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에섹 백작(Earl of Essex)과 결혼한 프란시스는 1613년 그와 이혼하고 그간 불륜 관계를 맺었던 썬머셋 백작(Earl of Somerset)과 재혼한다. 그리고 2년 뒤 그녀가 재혼에 반대한 오버베리 경(Sir Thomas Overbury)을 청부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1621년 살인죄로 투옥되었던 프란시스 부부가 왕의 명으로 무사히 방면되면서 종결된다. 그리고 1622년 오버베리 경과 대학 동기였을 뿐 아니라 프란시스가 재혼할 당시 ‘큐피드의 마스크’(*Masque of Cupid*)를 써서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과 결혼을 찬미했던 미들튼은 이 사건을 『바뀌친 신부』로 극화한다.

사건이 발생한 당대에 “추잡한”, “역겨운”, “창피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로 일컬어진 이 스캔들은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오랫동안 역사적인 기록 뿐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프란시스는 비이성적인 성적 욕망에 넘치는 악녀의 전형으로 재현되었다(Lindley 2, 77). 그 이유는 물론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그녀의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치정극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는 에섹스 백작과 이혼하기 위해 남편이 성적으로 불구이며 따라서 자신은 처녀라고 주장했다. 7년의 결혼 생활을 했고 그 동안 헨리 왕자를 비롯한 여러 남성들과 염문을 뿌렸으며 써머셋 백작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 데도 말이다. 따라서 귀부인과 산파로 구성된 배심원이 그녀가 처녀인지 그 여부를 심판하는 순결 재판이 열렸고, 재판을 통해 처녀로 판결 받은 프란시스는 합법적으로 이혼에 성공한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향한 당대인들의 도덕적 비난과 분노는 여러 남자를 오가며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살인까지 자행한 프란시스에게 집중되었다(Chakravorty 153).

그러나 하워드 스캔들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닌 것은 당대 제임스 1세와 의회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찰스 왕자와 스페인 공주의 결혼 계획과,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국 내 스페인 세력이 추진한 정치적 음모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에섹스 가문과의 유대와 화해를 위해 프란시스를 에섹스 백작 부인으로 만든 하워드 가문은 7년 뒤 새롭게 왕의 총아로 부상한 써머셋 백작과 그녀를 재혼시키려고 한다. 카톨릭 가문으로서 오랫동안 스페인으로부터 연금을 받아온 하워드 가문이 그를 통해 찰스 왕자와 스페인 공주의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재혼이 이뤄진 뒤 써머셋 백작은 곧 스페인 대사로 파견된다. 더욱이 『바뀌친 신부』가 초연되기 1년 전인 1622년 1월에 제임스 1세는 신하된 자는 군주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조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결혼 계획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투옥시킨다(Malcomson 321-22).

따라서 하워드 스캔들은 제임스 1세의 외교정책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카톨릭 세력과 청교도의 대립, 그리고 더 나아가 왕권의 문제와 직결된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브롬햄(A. A. Bromham)과 브루찌(Zara Bruzzi)는 이 극을 제임스 1세의 외교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

는 정치적 텍스트라고 규정한다(1). 그러나 『바뀌친 신부』는 단순히 제임스 1세의 정책에 반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성(性)의 교묘한 연결망, 정치와 여성문제를 둘러싼 당대 이데올로기의 복합적인 작용 양상에 주목한다. 이 점은 그 모티브가 된 프란시스 하워드 사건이 치정극의 옷을 입은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 뿐 아니라, 그 사건을 극화하면서 작가가 가정비극의 틀을 빌어 왔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활발하게 무대에 올려진 영국의 가정 비극은 일탈된 행동을 하는 여성, 특히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인해 가정이 와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녀들의 간통과 살인 등 범죄 행각을 극화한 뒤 많은 경우 것처럼 일탈된 여성을 죽음으로써 벌하거나 회개시키면서 끝을 맺는다. 『바뀌친 신부』 또한 여주인공 베아트리스(Beatrice-Joanna)가 아버지가 정해진 상대와 약혼을 해놓고도 새로 만난 다른 남자에게 끌려 하인을 시켜 약혼자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하인에게 순결을 내준 뒤 결혼을 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며 살인을 거듭하는 과정을 극화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를 죽음으로써 벌한다.

이처럼 『바뀌친 신부』가 그 틀을 빌어온 가정비극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가부장적 담론이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의 산물이다.<sup>2)</sup> 당시 영국에서는 가정이 사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가고 있었으나 아직은 공적인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통제의 일차적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 개혁 이후 동반자적인 결혼관이 부상하면서 결혼은 기독교 국가의 기원이자 신성한 삶의 축복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정은 곧 최초의 자연스런 국가 단위이며 가부장은 군주와 마찬가지로 절대복종을 바쳐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담론 속에서 가정 내 여성의 성역할과 지위는 계속되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이상과 달리 실생활에서는 신성한 축복으로

2) 당대 가정 개념의 변화와 가정극의 관계에 대해서는 돌린(Frances E. Dolan); 올린(Lena Cowen Orlin); 코멘솔리(Viviana Comensoli); 이종숙 참조.

서의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파편화되는 일이 잦았다. 1610년 즈음에는 사생아 출산과 가정 파괴가 절정에 이르고 이혼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가정의 와해가 국가의 위급한 문제로 여겨졌다.<sup>3)</sup> 때문에 이 시기 가정비극은 코멘솔리가 지적하듯 당대 영국 문화를 형성하는 광대한 담론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5)

물론 『바뀌친 신부』는 여주인공의 간통과 살인으로 인해 신성한 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정비극과 닮아 있되, 대개의 가정비극과 달리 영국을 배경으로 하지도 않고 게다가 텍스트 외적으로 당대 정치적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정비극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비극은 간통과 살인 등의 범죄를 소재로 함으로써 일견 정치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가정사에 초점을 맞춘 다음 모든 가정이 작은 왕국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 성역할, 결혼 즉 여성문제를 탐구하는 동시에 절대주의와 계약주의가 충돌하는 당대 역사 속에서 가정과 국가의 관계를 분석한다(이종숙 271-75). 따라서 당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된 사건을 극화하되 가정비극의 틀을 취하는 『바뀌친 신부』는 오히려 가정비극이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되 근거하고 있는 여성문제와 정치의 관계를 전면에 드러내게 된다.

이 글은 치정극의 옷을 입은 당대 최대의 정치 스캔들을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의 간통과 살인이 낳은 가정비극의 틀로 담아낸 『바뀌친 신부』가 정치와 여성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짓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 작품이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역사와 문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현실 속에서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익숙하지만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에 답할 하나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3) 이상과 다른 당대 결혼과 가정 현실에 대해서는 에이머슨(Susan Daywer Amussen) 205-10; 벨지(Catherine Belsey) 83; 홀브룩(Ralph A. Houlbrooke) 114; 스톤(Lawrence Stone) 137 참조.

## 2

『바뀌친 신부』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다. 『체스 한 게임』(*A Game at Chess* 1624)에서 체스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카톨릭 세력과 스페인을 공격하는 미들튼은 『바뀌친 신부』에서는 간통과 살인 사건의 배경을 스페인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사건이 제임스 1세가 다스리는 영국과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도록 한다. 이는 물론 패터슨(Annabel Patterson)이 지적하듯 당대 검열 제도 하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담아내는 한 방법이다(81). 그러나 『바뀌친 신부』는 이처럼 정치적 읽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동시에 청한다. 극의 시작에서 버만드로(Vemandero)와 알시미로(Alsemero)가 그의 아버지가 참전했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 “저 반역자 네덜란드 놈들”(1.1.181)이라는 대사를 통해 이 작품이 공연되기 1년 전 다시 시작된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전쟁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관객은 극 처음부터 제임스 1세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카톨릭 세력에 맞서 네덜란드, 독일과 함께 신교 동맹을 결성할 것을 거부했던 외교적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Malcomson 321).

이처럼 『바뀌친 신부』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프란시스 하워드 스캔들을 극화하되 관객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찰스 왕자의 결혼 계획을 비롯한 제임스 1세의 외교 정책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사건을 지켜보도록 유도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당대 의회와 왕의 참여한 대립을 낳았던 이 결혼 계획은 왕권 뿐 아니라 왕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제임스 1세 스스로 “나는 남편이요, 영국 전체는 나의 합법적인 아내이다”라고 남편과 군주를 동일시하는 가부장적 유비관계를 통해 왕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했다. 그로 인해 왕이 된 자가 영국이라는 아내가 스페인 세력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 책임을 게을리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Malcomson 335).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한 왕의 책임을 아내와 국가의 유비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논의는 국가, 도시, 성(城) 등 지켜져야 할 정치적 영토를 여성의 몸으로

비유하는 가부장적 정치 담론에 근거하고 있다. 결혼은 남성이 여성의 몸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허가를 얻고 그렇게 해서 남성들 간의 유대를 확장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여성의 몸이 순결하게 그리고 정조 있게 지켜져야 할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순결은 동맹 상대를 결정할 아버지 왕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여성의 정조는 아버지와 남편의 왕국이 완전 무결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국가와 여성의 몸 모두 높은 담장으로 에워싸고 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sup>4)</sup> 실제로 1588년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처녀 여왕의 존재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는 영국의 힘을 상징했다.

『바뀌친 신부』에서도 베아트리스를 얻고자 하는 남자라면 누구나 “아버지의 성을 보고 싶어한다”(1.1.157-8). 하지만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낮선 이에게는 우리의 성을 보여주지 않는다”(1.1.161-62)는 아버지 버만드로의 말에서 확인되듯 성(城)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의 주인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성 안은 비밀이다”(1.1.164)는 버만드로의 대사는 백성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와 정부의 비밀을 해친다고 주장한 제임스 1세의 발언을 생각나게 한다(Bromham and Bruzzi 38). 이처럼 『바뀌친 신부』는 버만드로에게서 제임스 1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당대 정치 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여성의 몸과 성(城), 즉 가부장적 영토 사이의 유비 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베아트리스의 간통과 살인이 밝혀진 순간 “한 때의 적군이 내 성에 들어온들 / 이 만큼 놀랍겠느냐. 조애나! 베아트리스! 조애나!”(5.3.147-48)라고 외치는 버만드로의 대사는 베아트리스의 몸이 아버지인 자신도 모르게 허가받지 않은 상대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자신의 성(城)이 적군에 의해 침범당한 것에 비유함으로써, 베아트리스의 몸과 순결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버만드로에게 자신의 성(城)을 지키는 일, 곧 베아트리스의 몸을 지키는 일

4) 여성의 몸과 국가의 유비 관계에 대해서는 휘그햄(Frank Whigham); 더글러스(Mary Douglas); 스텔리브러스(Peter Stallybrass) 참조.

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보로 남성들 간의, 가문 간의 유대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아트리스의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버만드로의 권리인 것은 물론이며 그가 알론조를 사윗감으로 택한 이유도 알론조가 “아름답고 고귀한 장식을 많이 부유하게 갖춘 / 완벽한 신사”(1.1.210-11)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이여 여자를 경계하라』(*Women Beware Women* 1613)에서 이사벨라(Isabella)의 아버지처럼 상대의 재산 때문에 억지 결혼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버만드로가 딸을 결혼시키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결혼을 통해 자신과 사위가 맺게 될 “유대”(1.1.217)이며, 딸의 결혼은 곧 그에게 “아들을 하나 더 얻는 것”(2.1.99)이 된다.

따라서 베아트리스의 몸이 아버지도 모르게 더럽혀진 것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굳건히 지켜져야 할 성(城)에 적이 들어온 것과 다름없는 일이며, 그것은 곧 이제 까지 한점 흠이 없던 자신과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 의미한다(5.3.180-81). 여성이 성(城), 영토로 비유될 때 여성의 순결은 독점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유물이 되고, 따라서 여성이 순결을 잃는 것은 재산을 ‘도둑맞은’ 것이 될 뿐 아니라 가문의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다(Khan 121). 당대 사회에서 강간이 강간을 당한 여성 보다는 그녀의 아버지와 가문에 대한 위협이자 사회와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Burks 765). 이처럼 여성의 순결에 가부장적 정치 질서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성의 순결과 정절이 유난히 강조되었고, 그 과정에서 에이머슨의 지적대로 여성의 정직함 여부 혹은 평판은 남성의 경우와 달리 전적으로 ‘성적인’ 행실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100-104).

이와 같이 여성의 몸을 가정, 국가에 비유하면서 남성들 간의 유대와 권위를 강화하는 가부장적 정치 담론 속에서 여성의 몸과 순결은 반드시 얻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함부로 외부인이 넘보지 못하도록 가둬 놓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바뀐 신부』에서 남성들은 버만드로의 성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베아트리스의 몸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녀의 몸과 순결에 집착하는 만큼 그녀의 몸을 철저히 가둬두고자 한다. 알시미로는 베아트리스와 결혼하기 전 은밀하게 간직한 순결 시약으로 베아트리스의 순결을 시험

한다. 그리고 그녀가 처녀의 증상을 보이자 드플로리스(De Flores)와의 관계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애나, 천국의 숨결처럼, 혹은 아침의 자궁처럼 순결한 / 그로 인해 날이 밝으니 내 사랑이 그대를 에워싸요!”(4.2.149-50)라고 말하며 그녀와 결혼한다. 알시미로의 이 대사는 베아트리스가 순결할 때라야만 그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순결이 확인된 이상 결혼을 하되 그녀의 몸을 “에워싸”(enclose) 지키고자 한다는 통제와 욕구를 드러낸다. 실제로 베아트리스의 부정이 드러나자마자 알시미로는 그녀를 내실에 들여보내고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그녀의 몸을 가둬둔다.

『바퀴친 신부』에서 이처럼 남성이 여성의 순결에 집착하면서 그녀의 몸을 가두어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부플룻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알리비어스(Alibius)는 “에워싸겠다”는 알시미로의 대사를 말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당대 전형적인 질투심 많은 남편이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 이사벨라(Isabella)가 자기 몰래 부정을 저지를까봐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병동에 실제로 가둬둔다. 이사벨라의 지적대로 알리비어스는 아내의 몸을 “우리에 가둬둔”(3.3.3) 것이다. 그것은 “내 반지는 내 손에 끼워야 겠다”(1.2.27)는 그의 대사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질을 상징하는 반지에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여성의 몸과 순결을 독점하겠다는 욕망과 그러한 욕망에서 파생한 불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의 몸을 소유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순결에 집착하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체제에 위기가 발생한다. 베아트리스가 순결을 잃음으로써 굳건히 지켜져 할 버만드로의 성(城)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퀴친 신부』에서 그러한 위기를 낳은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표면적으로 그 원인은 델터를 비롯한 여러 평자들이 지적하듯 베아트리스의 성적인 욕망에 있는 듯이 보인다 (“Introduction” xxvi).

1막 1장에서 알시미로를 만난 베아트리스는 자신이 벌써 약혼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내 안에서 아찔한 변화를 발견했어”(1.1.153-54)라고 말한다. 이때 그녀가 사용하는 “변화”(turning)란 단어는 자신의 감정이 알론조에게

서 알시미로에게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뜻과 함께 알시미로가 그녀에게 아찔할 정도의 성적 욕망을 일깨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가 정해진 상대와의 결혼을 이의 없이 따를 예정이었던 그녀가 알시미로와 만난 순간 갑작스럽게 그에게 성적으로 이끌린 것이다. 무대에 처음 등장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먼저 키스하고 키스를 마친 뒤 베아트리스가 그를 가리켜 사랑의 기술에 뛰어난 “학생”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따라서 베아트리스가 드플로르스를 시켜 알론조를 살해하는 것은 알론조를 사위로 맞은 기쁨을 표하는 아버지 버만드로에 거슬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1.1.218)는 그녀의 뜻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베아트리스의 성적 욕망이란 것은 변덕스럽기까지 하다. 베아트리스는 비록 아버지가 정해진 상대이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알론조를 마음에 들어 했다. 알시미로를 만난 그녀가 시간을 닷새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괴로워하며 “내 눈이 잘못 봤다”(1.1.83)라고 말하는 것은 알시미로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 스스로 알론조를 좋아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알론조와의 약혼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베아트리스 자신도 동의했거나 마음에 들어 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베아트리스의 눈이 내리는 판단이란 닷새 만에 바뀌었듯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베아트리스의 모습을 근거로 맬콤슨(Malcomson)은 『바뀌친 신부』가 프란시스 하워드 사건을 극화하여 스투어트 왕권에 비판을 가하되 그 과정에서 왕의 배려로 현실에서는 살아남은 프란시스를 극 속에서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녀에 대한 가부장적 복수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 극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일지 모르나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337-39). 그러나 『바뀌친 신부』에서 변덕스런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일탈한 여성을 죽음으로써 벌하는 것이 가부장적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가의 한계라고 바로 결론지을 수만은 없는 것은, 우선 베아트리스의 범죄를 보여주고 그녀를 벌하는 과정이 당대 실제 사건을 극화하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가정비극의 구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탈된 여성의 범죄를 보여주되 신성한 결혼과 가정이 파괴된 탓을 전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욕망으로 돌리는 것은 『훼이버샴의 아든』(*Arden of Feversham* 1591) 이후 이 시기 많은 가정비극의 특징이다. 실제 발생했던 간통과 남편 살해 사건을 극화한 『훼이버샴의 아든』에서 간통과 남편 살인은 앨리스(Alice Arden)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욕망에 빠져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551년에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이 여성의 욕망으로 인한 가정 파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어 끊임없이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훼이버샴의 아든』이 사건 발생 후 40년이 지난 뒤에 쓰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남편을 살해한 앨리스의 행위는 앞서 지적했듯 가정비극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과 국가의 유비 관계에 따라 군주를 살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 ‘작은 반역’(petty treason)으로 규정되었다.

베아트리스의 범행이 밝혀진 후 알시미로가 그녀를 “욕정의 악마”(5.3.31)라 칭하며 그녀의 일탈을 “겉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이 창녀로 변한 것”(5.3.197-8)이라고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버만드로가 그녀의 일탈을 자신의 성(城)에 적군이 침입한 것에 비유하는 모습은 『훼이버샴의 아든』과 같은 가정비극이 가정과 국가 질서의 흔들림을 전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 탓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성적 욕망에 이끌린 베아트리스에게서 범죄와 비극의 원인을 찾는 듯한 극의 표면적인 모습은 앨리스 아든의 범죄나 프란시스 하워드 사건이 당대 이해되고 재현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작가가 『바뀌친 신부』의 원전이라고 알려진 레이놀즈(John Reynolds)의 『사건 계획된 살인이라는 그냥 내버려 둘 없는 사악한 범죄에 대한 신의 복수의 승리』(*The Triumphs of God's Revenge against the Crying and Execrable Sin of Wilful and Premeditated Murder* 1621)에서 줄거리를 빌되 일관되게 변형을 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레이놀즈의 원전에서 베아트리스는 알론조와의 결혼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알시미로를 사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알론조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또 한명의 신사 드플로러스에게 부탁

해 알론조를 살해한다. 드플로리스의 사랑과 살인 덕분에 알시미로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그는 질투심 많은 남편으로 변모하고 그로 인해 외로운 처지에 놓인 베아트리스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드플로리스와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바뀌친 신부』는 레이놀즈의 원전과 달리 강제 결혼을 추진하는 아버지나 질투심 많은 남편 등 베아트리스의 살인과 간통에 대해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고 공감할 만한 요소를 한 가지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가가 가정비극의 틀을 가져오고 원전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의도한 바는 프란시스 하워드 사건을 프란시스의 변덕스러운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추잡한 치정극으로 이해하고 재현하는 당대 사회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베아트리스가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듯 보이면서도 작품 속 다른 어떤 인물보다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등장하는 남성 인물 모두 여성의 순결에 집착하는 『바뀌친 신부』에서 흥미롭게도 “명예”와 “순결”이란 단어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아닌 베아트리스이다.

베아트리스. 처녀성이여, 내 너와 오래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돌연 갑작스레 헤어지게 되었구나  
엄숙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런 친구와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한단 말이터냐?  
(1.1.192-95)

위 대사에서 베아트리스는 처녀성을 마치 오래 함께 살다 헤어지는 친구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이는 그녀가 순결을 자신과 별개인 독립적인 개체, 다시 말해 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덕목이나 자질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담론이 여성의 순결을 남성과 가문의 소유물이자 거래 상품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순결을 자신과 별개인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베아트리스 자신이 여성의 순

결을 소유하고 지켜야할 하나의 상품으로 물신화하여 그에 집착하는 당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침윤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극중에서 토메이조(Tomazo) 외에는 마지막까지 아무도 베아트리스를 의심하지 않는 것도 베아트리스가 이처럼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피를 적신 여자가 순결을 운운하다니?” (3.4.126)라며 비아냥거리는 드플로러스의 말 맞다나 베아트리스가 ‘어울리지 않게’ 순결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순결이 아버지, 즉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녀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축복은 / 내가 그의 명예를 지켜줄 때만 내 것이지 / 그렇지 않고 명예를 잃으면 내게서 등을 돌릴 것이고/ 저주로 변할 거야”(2.1.20-23)라는 그녀의 대사에서 드러나듯 자신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을 때, 다시 말해 순결한 여성이라는 결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았을 때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믿고 내면화한 베아트리스이기에 순결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첫날밤에 다이어팬터(Diaphanta)를 대신 들여보낸 뒤 살해하는 것이다.

베아트리스가 이처럼 당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죽음을 맞는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진다.

베아트리스.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더럽힐 거예요.  
 전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핏줄에서 떼어 낸  
 피예요. 거들떠보지도 말고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쏟아버리세요(5.3.149-52).

인용한 대사에서 베아트리스는 자신의 범죄를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문의 피를 더럽힌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가문에 끼친 불명예를 지우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그녀와 가문 사이의 연을 끊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녀 스스로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못난 딸자식임을 강조하

면서 혈연을 끊도록 당부하고 숨을 거둔다. 『사랑으로 죽인 여자』(*Woman Killed with Kindness* 1603)에서 가정이라는 낙원을 파괴한 자신을 단식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스스로 벌하는 앤(Ane Frankford)처럼 베아트리스 또한 살인과 간통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의식을 지배했던 당대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내면화하여 따르면서 스스로를 단죄한다.

이처럼 베아트리스는 비이성적인 성적 욕망에 이끌려 남편을 살해한 엘리스의 면모와,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정절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단죄하는 앤의 면모를 한 몸에 보여주고 있다. 베아트리스를 통해 당대 가정비극이 일탈한 여성을 재현하는 두 가지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에, 『바뀌친 신부』는 실제 일어난 프란시스 하워드 사건을 극화하되 그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여성의 성적 욕망과 여성성을 정의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바뀌친 신부』의 이와 같은 특징은 베아트리스로 하여금 성적인 함의를 가진 동음이의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극 중에서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service”, “reward”, “passion”, “employment” 등은 그 일차적인 뜻 외에 성적인 함의를 가진 단어들이다. 그녀가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성적인 욕망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녀가 그러한 욕망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베아트리스가 성적인 함의를 가진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보다는, 그녀의 성적인 욕망을 여성의 숨겨진 본성으로 규정하려는 남성들이 그녀가 사용하는 이중적인 언어를 전적으로 성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이다.

베아트리스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댈터는 그녀가 알론조에게서 알시미로로 욕망의 대상을 바꾼 순간 이미 드플로러스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베아트리스가 드플로러스와 부정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드플로러스의 협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녀가 처음부터 드플로러스에게 품고 있던 기이한 욕망을 충족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Introduction” xxv-xxvii).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베아트

리스가 사용하는 이중적인 언어의 의미를 전적으로 성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극 중 드플로리스의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드플로리스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베아트리스의 모습을 “변덕스런 성적 욕망”(1.1.106)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드플로리스 자신이다. 이는 “이 불길하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한 녀석이 다른 어떤 괴로움보다 더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2.1.53-54)는 베아트리스 대사에서 “passion”을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무시한 채 “성적인 욕망”으로만 해석하는 일이기도 하다. 드플로리스의 이러한 해석 작업은 천하에 흥물인 그가 베아트리스와 같은 미인을 음식에 비유하며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2.1.46-47)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때 그의 의지란 “내 손을 여기 그녀의 구멍에 끼우겠다”(1.1.231)는 대사에서 “구멍”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성적인 함의를 통해 드러나듯 베아트리스의 순결을 차지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드플로리스가 베아트리스의 언어를 전적으로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욕망을 그녀 또한 함께 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녀를 뺨의 유혹에 넘어가 낙원을 타락시킬 수밖에 없는 이브로 규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드플로리스가 알론조를 죽인 대가로 베아트리스의 순결을 요구하자 베아트리스는 신분상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자 드플로리스는 베아트리스의 마음, 곧 양심에 바로 자신이 있으며 따라서 자신은 베아트리스와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분이란 행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당신은 행동의 피조물이야. 살인자란 이름을 얻었으니/ 애초에 갖고 있던 네 신분은 잃은 거지”(3.4.137-38)라고 이제 자신과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돌리모어는 이 대목에서 드플로리스가 혈통이나 태생이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권력 형태에 봉사하는 신화에 불과함을 폭로한다고 주장한다(178). 그의 주장대로 드플로리스가 베아트리스를 지배 계급으로부터 자신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려 권력 자체를 탈신비화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을 애초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브이자 창녀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

이다. 그가 말한 “애초에 갖고 있던 네 신분”(you first condition)이 귀족 계급인 그녀의 신분을 지칭하는 동시에 타락하기 이전 낙원에서 순수한 상태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로 다음 대사에서 드플로러스는 베아트리스를 “창녀”라고 칭하고 있다.

신분의 격차로 인해 버만드로의 성(城) 안에 살고 있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드플로러스는 이처럼 베아트리스의 순결을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욕망 뿐 아니라 정치적 욕망을 실현한다. 버만드로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인 사위가 될 수 없는 드플로러스로서는 그녀의 몸을 소유하는 것만이 허락되지 않은 성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플로러스는 베아트리스의 몸에 칼을 꽂은 뒤 그녀를 “인류의 부러진 갈비뼈”(5.3.146)라 칭하며, 자신이 그녀를 통해 성적인 쾌락을 모두 이뤘기에 다른 남자가 즐길 몫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실제로 당대에 신분이 낮은 남성들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가문의 여성을 강간하여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신분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때문에 강간은 엄격한 위계에 근거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여겨졌다(Burks 764-65).

이처럼 『바뀌친 신부』는 드플로러스를 통해 남성이 자신의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창녀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앞서 지적했듯이 극 전반에 걸쳐 베아트리스의 몸을 자신의 성(城)과 동일시하는 버만드로가 “성 안은 비밀이다”(1.1.16)라고 말한다거나, 알론조를 성 안으로 안내하는 드플로러스가 곁에서 보기에 넓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면 실제로 그 안은 “좁다”(3.2.6)고 설명하는 등 극 중 남성들의 대사를 통해 성의 내부가 곁과 다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게다가 성 안은 “미로”와 “지옥”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는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을 곁과 다른 존재,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비이성적이고 추잡한 성적 욕망을 숨긴 존재, 즉 남성을 타락시키는 “감춰진 질병”(1.1.24)으로 규정하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아트리스는 남성에게 의해 해석되고 정의되는 존재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성적인 함의를 가진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되 누구보다 순결과 명예에 집착하는 여성으로서 베아트리스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정의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그녀의 언어와 감정은 드플로리스에 의해 성적인 욕망의 표현으로만 해석되고, 그녀의 범죄는 알시미로에 의해 겉보기에 아름다웠던 여인이 창녀로 변한 것으로 정의된다. 때문에 부플롯의 미친 이들처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녀는 벨지가 설명하듯 의미를 소유함으로써 권력을 정의하고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하여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191) 철저하게 박탈당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뀌친 신부』는 여성의 몸을 성(城), 가정, 국가에 비유하면서 여성의 순결에 집착하되 동시에 여성을 본능적으로 성적인 욕망에 넘치는 존재로 규정하는 당대 정치 담론과 가부장 담론의 음험한 공모를 폭로한다. 이는 곧 당대 사회와 문화가 여성의 성(性), 여성성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통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이 순결해야 하지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베아트리스라는 여성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에 내재한 모순과 균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알시미로. 내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신성한 목적을 위함이니네  
 그것은, 내 생각에, 인류의 창조,  
 축복받은 낙원과 비견될만하지  
 인간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고향말이야, 그 목적을 이룬다면  
 말이지(1.1.6-9).

막이 오르고 관객이 듣는 첫 대사에서 알시미로는 베아트리스에 대한 사랑이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브가 타락함으로 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일로 결혼을 정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대에는 종교 개혁 이후 결혼이 가장 정상적인 형태의 삶의 방식이자 당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 여겨지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는 일로 이상화되었다. 게다가 제임스 1세 스스로 국가라는 '정치적 낙원'을 수호하는 신성한 권리와 책임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Chakravorty 146).

그러나 이처럼 낙원으로서 결혼을 이상화하는 것은 그 비유 속에 이미 낙원의 파괴를 예견하고 있듯이, 결혼은 계약이며 따라서 이혼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는 양면적 인식과 함께 했다. 그리고 당대 결혼제도의 바로 이러한 양면적 상황으로 인해 생산된 담론이 바로 가정비극이다(이중숙 275). 더불어 가정비극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과 국가의 유비 관계 속에서 왕국을 낙원에 비유하며 그것을 지킬 권리와 책임을 주장하는 왕권 또한 신성하지만 취소될 수 있다는 양면적인 인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가정을 낙원에 비유하여 찬미한 뒤 그 낙원을 파괴한 죄를 여성에게 묻고 벌하는 과정이 『사랑으로 죽인 여자』를 비롯한 가정비극의 주요 소재가 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바뀌친 신부』 또한 낙원으로서 가정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러한 낙원을 만들어야 할 이브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따라서 낙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조차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뀌친 신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비극의 원인을 극중 남성 인물들이 말하듯 베아트리스의 성적인 욕망에 돌리는 대신, 순결해야 하지만 순결할 수 없는 모순적인 존재, 낙원을 이루되 동시에 파괴하는 이브로 여성을 규정하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에서 찾는다. 베아트리스는 알시미로가 마련해 둔 시약 덕분에, 다시 말해 그것이 존재함을 알고 처녀의 증상을 흉내냄으로써 오히려 부정을 들켜지 않을 수 있었다. 부풀릇에서 아내의 부정을 막기 위해 아예 정신병동에 가둬둔 남편 알리비어스 탓에 이사벨라에게는 오히

려 부정할 기회가 생겼다. 여성의 몸을 가정과 국가에 비유하고 그 순결에 집착하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이 오히려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일탈하고 남편을 속일 기회를 마련해주는 아이러니를 낳는 것이다.

특히 베아트리스가 다이어팬터를 신방에 대신 들여보내 순결을 입증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신부 바뀌치기’ 모티프를 이용한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린들리(Lindley)가 지적하듯 프란시스 하워드의 순결 재판이 그러한 문학적 모티프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115). 실제로 당대에는 프란시스가 에섹스 백작과 이혼하기 위해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처녀를 대신 들여보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처럼 현실의 프란시스나 문학 작품 속의 베아트리스가 모두 신부를 바꿔침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지켜질 수 없는 대상으로 여성의 순결을 정의하고 그에 집착하는 당대 사회가 오히려 그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해 스스로 위협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대 가부장적 담론이 여성의 순결을 여성과는 독립된 개체이자 상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순결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순결과 헤어질 수 없다며 아쉬워하는 베아트리스에게 “그거 뭐 별 것 아니지”(1.1.195)라고 말하는 버만드로의 대사가 드러내듯,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 스스로 여성의 순결을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뀌친 신부』가 보여주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의 모순과 균열은 베아트리스를 죽음으로 처벌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극의 결말이 담고 있는 아이러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베아트리스의 시신은 그녀의 당부대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려진 채 무대에 놓여 있다. 이제 알시미로는 버만드로에게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5.3.182)라며 베아트리스가 말했듯 그녀를 가문의 혈통에서 떼어내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라고 조언한다. 더불어 그는 간통과 살인이라는 아내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죽음으로써 벌한 마당에 “여전히 아들로서 제 의무는 살아 있습니다”(5.3.216)라며 버만드로에게 자신이 아들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어지는 에필로그의 내용 또한 베아트리스로 인해 야기되었던 슬픔을 위로한다는 명분 하에 남아 있는 서로 다른 가문의 남성들, 알시미로, 토메이조, 버만드로가 형제와 부자의 관계로 맺어짐을 다짐하고 관객의 승인을 청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당대에 여성의 순결을 담보로 한 결혼이 남성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편이 되었다면, 그래서 버만드로가 사위와의 유대를 것처럼 강조했다면, 이제 순결의 의무를 잃고 창녀가 된 베아트리스를 제거함으로써 흔들릴 뻔한 남성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하고 오히려 세 가문이 하나로 결속된다.

그러나 이들 세 남성이 남아 있는 성(城)은 물론 베아트리스라는 위협 요소가 제거된 낙원이긴 하지만 불모의 낙원이며, 드플로러스의 대사에서 확인되듯 “지옥”(5.3.163)과 다름없다. 또 그의 말을 받아 “지옥이 여기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5.3.164)는 버만드로의 대사는 베아트리스의 몸을 자신의 성(城)과 동일시하여 에워싸 가두려 하되, 그녀의 피할 수 없는 성적 욕망으로 인해 성안이 지옥과 같다고 규정하는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의 모순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담론의 모순과 균열로 인해 남아 있는 남성 인물들 모두 지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과 균열은 여성을 미친 이와 마찬가지로 가뉘 다스려야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당대 가부장적 담론 하에서 스스로 광기를 가장하여 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한 뒤 질투심 많은 남편을 어리석다고 질책하는(5.3.211) 이사벨라의 존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와 같이 『바꿔친 신부』는 당대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프란시스 하워드 스캔들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드러내고 그 배후에 자리한 가부장적 정치 담론의 작용 방식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는 살아남아 온간 도덕적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프란시스 하워드를 극 속에서 죽임으로써 오히려 그녀를 당대 가부장적 정치 담론의 윗가미로부터 구해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당대 담론이 그 자체에 내재한 모순과 균열에 의해 위협받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아이러니하게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꿔친 신부』는 문학 작품이 현

실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음을 증거 한다. 근 4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극화한 이 극이 현재 까지도 자코비안 시대의 극 중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작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이종숙(2003), 「영국에 온 유리피디즈」 『안과 밖』 14, 256-90.

Amussen, Susan Dwyer(1998), *An Ordered Society: Gender and Class in Early Modern England*. New York: Columbia UP.

Belsey, Catherine(1985), *The Subject of Tragedy: Identity and Difference in Renaissance Drama*. London and New York: Methuen.

Bromhm, Tony and Zara Bruzzi.(1990), *The Changeling and the Years of Crisis, 1619-1624: A Hieroglyph of Britain*. London: Pinter.

Burks, Deborah G.(1995), “I’ll Want My Will Else”: *The Changeling* and Woman’s Complicity with Their Rapists. *ELH* 62.4, 759-90.

Chakravorty, Swapan(1996), *Society and Politics in the Plays of Thomas Middleton*. Oxford: Oxford UP.

Comensoli, Viviana(1999), ‘Household Business’: *Domestic Plays of Early Modern England*. Toronto/Buffalo/London: U of Toronto P.

Daalder, Joost(1988), “Folly and Madness in *The Changeling*.” *Essays in Criticism* 38, 1-21.

\_\_\_\_\_, “Introduction.” Middleton and Rowley xi-xxviii.

Dolan, Frances E.(1994), *Dangerous Familiars: Representations of Domestic Crime in England in 1550-1700*.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_\_\_\_\_(1992), “The Subordinate(s) Plot: Petty Treason and the Forms of Domestic

- Rebellion." *SQ* 43 no. 3, 317-40.
- Dollimore, Jonathan(1984), *Radical Tragedy: Religion, Ideology and Power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Sussex: Harvester.
- Doob, Penelope(1973), "A Reading of *The Changeling*." *ELR* 3, 183-206.
- Douglas, Mary(1995),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1966; London: Routledge.
- Eaton, Sara(1991), "Beatrice-Joanna and the Rhetoric of Love." *Staging the Renaissance: Reinterpretations of Elizabethan and Jacobean Drama*. Eds. David Scott Kastan and Peter Stallybrass. New York: Routledge, 275-89.
- Eliot, T. S.(1951),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 Faber.
- Foucault, Michel(1984), *The History of Sexuality*. trans. Robert Hurley. 1978; Hamondsworth: Penguin.
- Henderson, Diana E.(1997), "The Theater and Domestic Culture." *A New History of Early English Drama*. Eds. John D. Cox and David Scott Kastan. New York: Columbia UP, 173-94.
- Heinemann, Margot(1980), *Puritanism and Theatre: Thomas Middleton and Opposition Drama under the Early Stuarts*. Cambridge: Cambridge UP.
- Houlbrooke, Ralph A. *The English Family 1450-1700*. London: Longman, 1984.
- Jankowski, Theodora A.(1992), *Women in Power in the Early Modern Drama*. Urbana and Chicago: U of Illinois P.
- Kahn, Copp lia(1981), *Man's Estate: Masculine Identity in Shakespeare*. Berkeley: U of California P.
- Lindley, David(1993), *The Trials of Frances Howard: Fact and Fiction at the Court of King James*. London: Routledge.
- Little, Arthur L. Jr.(1993), "'Transshaped' Women: Virginity and Hysteria in *The Changeling*." *Madness in Drama*. Ed. Redmond James. Cambridge: Cambridge UP, 19-42.
- Malcolmson, Cristina(1990), "'As Tame as the Ladies': Politics and Gender in *The*

*Changeling*.” *ELR* 20.2, 320-39.

Middleton, Thomas and William Rowley.(1990), *The Changeling*. Ed. Joost Daalder.  
London: A & C Black.

Orlin, Lena Cowen(1994), *Private Matters and Public Culture in Post-Reformation  
England*.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Ornstein, Robert(1960), *The Moral Vision of Jacobean Tragedy*. Madison: U of  
Wisconsin P.

Patterson, Annabel(1984), *Censorship and Interpretation: The Condition of Writing  
and Reading in Early Modern England*. Madison: U of Wisconsin P.

Simmons, J.L.(1980), “Diabolical Realism in Middleton and Rowley’s *The  
Changeling*.” *Renaissance Drama*. 11, 135-70.

Stallybrass, Peter(1986), “Patriarchal Territories.”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s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Eds.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Vickers. Chicago: Chicago UP.

Stone, Lawrence(1977),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Whigham, Frank(1988), “Reading Social Conflict in the Alimentary Tract: More on  
the Body in Renaissance Drama.” *ELH* 55 339-43.

원고 접수일: 2005년 4월 15일

게재 결정일: 2005년 6월 8일

**ABSTRACT**

---

“An Host of Enemies Entered My Citadel / Could Not  
Amaze Like This”: The Woman Question and  
Politics in *The Changeling*

Kim, Heejean

The recent critics tend to see *The Changeling* as either an attack on political rule, or as a reflection of the contemporary patriarchal ideology. In these views, *The Changeling* demystifies state power and ideology, and in doing so more aggressively exercises male patriarchal authority.

Reading against these perspective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hangeling*, a play influenced by the history of Frances Howard, discloses the matrix of assumptions that conditioned the way her contemporaries saw her. Middleton and Rowley use domestic tragedy in order to discuss the conflicts and tensions in sex, marriage and femininity based on the analogy between family and state. Thus they reveal the politics of patriarchy that dictated the manner in which she was represented as an epitome of female villainy, malicious, irrational and lustful. Also they expose the complicit premises on which family and kingdom were founded.

In *The Changeling*, Beatrice, who is blamed for her irrational sexual desire by male characters, tries to guard her familial honor. She is a woman who internalizes the ideology of a contemporary patriarchal society that is obsessed with preserving women's chastity as both a symbolic value of her family and a map of the integrity

of the state. Through Beatrice, Middleton and Rowley reveal the contradictory patriarchal discourses that defined woman as a lascivious whore, yet required her to be chaste. Moreover, her success in the chastity test and the barrenness of the happy conclusion after her death show that the politics of patriarchy that contradictorily defines femininity brings society to a crisis.

